



[EAI 워킹페이퍼] 한일관계 세대분석_안보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I. 서론

2020년은 한일 양국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지 55주년이 되는 의미깊은 해이다. 청년세대(이후 MZ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이웃 국가였음에도 공식적인 외교 관계조차 수립하지 못한 ‘언택트(untact)’ 관계였다.¹ 어쩌면 한일 간 외교 관계의 정상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MZ세대에게는 한일 기본조약이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나’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기반해서 상대를 평가하는 MZ세대에게 있어서 한일 간 외교 정상화 과정은 ‘나’로서의 MZ세대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다. 덧붙여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MZ세대는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에게 한일관계 정상화 55주년이라는 것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외교행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MZ세대에게 한일관계는 어떻게 인식되어질까?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사회에 변동을 가져오는데, MZ세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그 기반을 확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사회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MZ세대는 ‘나’라는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고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며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MZ세대의 인식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답습하기 보다는 “다른 세대와의 구별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하인츠 부데 2014, p. 50). 왜냐하면 기성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MZ세대에게는 “완전히 당연한 것으로, 전혀 흥분할 만한 것이 아니게끔”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인츠 부데 2014, p. 50).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그동안 한국인의 대일본 인식이 ‘반일감정’이라는 상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MZ세대라는 세대의 특징에 따라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세대와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MZ세대가 결과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중시하며, 나의

¹ 본고에서는 청년세대를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경험이 중요시되는 대외관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일본과 한일관계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안보정책에서 세대 변수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배진석 2018; 윤정호 2013; 박원호 2012; 박영득, 이재묵 2016), 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의 MZ세대가 일본을 어떠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 어떠한 위협인식을 표출하고, 나아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겐론NPO가 함께 진행한 <한국인의 동아시아인식조사>를 활용해서 기술통계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MZ세대에게 있어서 안보 문제란 국가의 이익이라는 상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서의 MZ세대가 무엇을 공정하게 바라보는가라는 이슈로 전환되는 지점에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청년세대(MZ 세대)의 대일인식

2010년대 이후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북핵 문제의 미해결, 민족주의 대두 등 역동적인 변환의 과정에 있으며, 한일관계는 이러한 정세에 영향을 받으며 심한 부침을 겪고 있다. 2018년 후반 이후 한일 갈등은 역사문제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10월 제주 관함식의 참가대상이었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사건, 12월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2020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 사건 등 그 어느때 보다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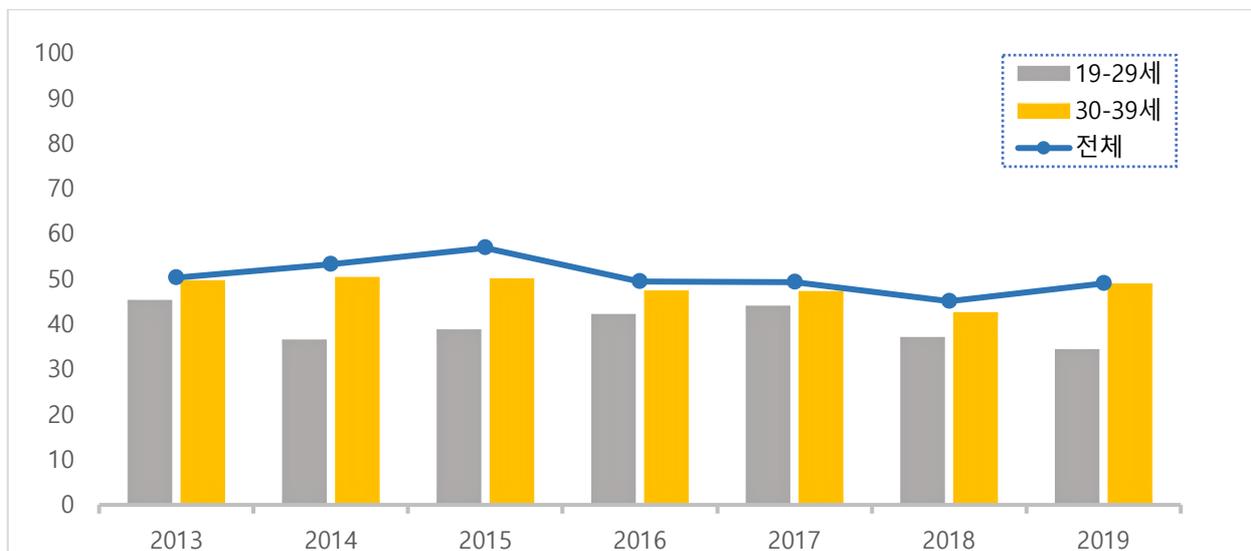
이러한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 일본은 어떠했을까?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2차 내각이 들어서면서 한국 내에서는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 가능성에 강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아베 정부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2015년 4월 미일 간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를 시행하는 등 일련의 안보정책을 변화시키면서 일본의 변화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해온 안보정책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이 한국의 MZ세대의 대일인식에는 어떻게 투영되었을지 <동아시아인식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정치와 사회의 운영방식: 군국주의와 평화주의

한국의 MZ세대가 일본의 정치와 사회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일본이 어떤 국가인지를 가늠하는 기초적인 잣대가 된다. <동아시아인식조사>(2013-2019년)에 의하면 응답자가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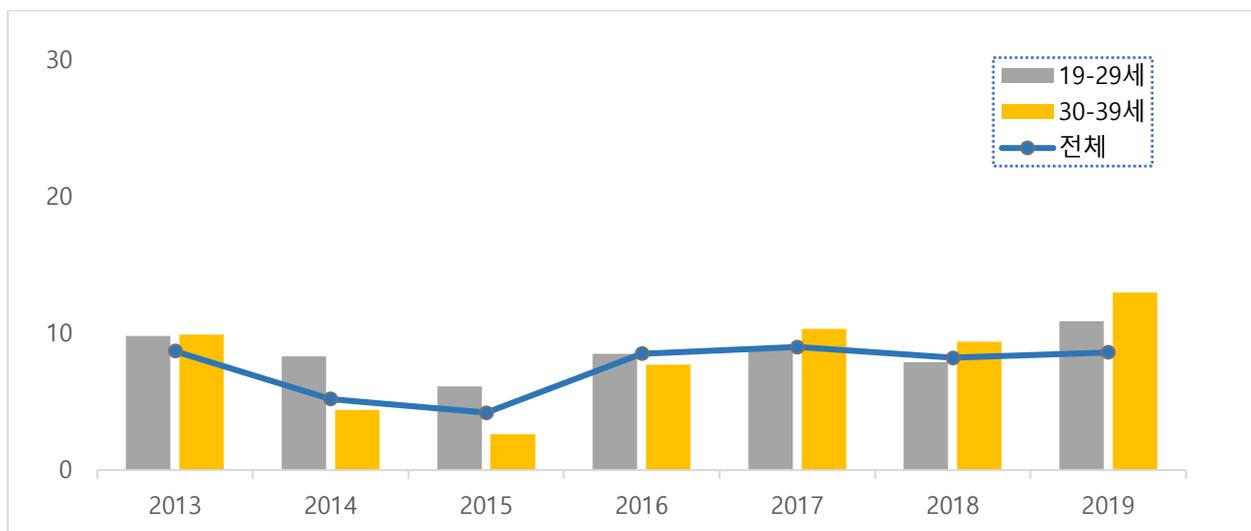
의견은 군국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였으며 응답자가 적은 의견은 국제협조주의, 평화주의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일본이 군국주의에 의해 정치와 사회가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평화주의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견은 소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군국주의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2013년 50%, 2014년 53%, 2015년 57%, 2016년 50%, 2017년 49%, 2018년 45%, 2019년 49%였으며, 평화주의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9%, 2014년 5%, 2015년 4%, 2016년 9%, 2017년 9%, 2018년 8%, 2019년 9%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바라보는 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일본을 평화주의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 Q. 일본을 어떤 체제라고 인식하는가(%)/군국주의



* 출처: 2013-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그림 2] Q. 일본을 어떤 체제라고 인식하는가(%)/평화주의



* 출처: 2013-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간접통치 아래에서 전전의 군국주의와 단절한 채 ‘민주화’와 ‘비군사화’의 규범에 기반한 안보정책을 추진해왔다(Dower1999). 그리고 군사적 전략, 즉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한 헌법 9조에 의해서 이러한 민주화 및 비군사화 규범을 견고하게 제도화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무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한 요시다 독트린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림 1과 2의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후 일본을 규정짓는 두 개념이 한국인의 대일인식에서는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전 세대에 걸친 전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일본을 군국주의로 인식하는 비중이 낮으며, MZ세대 내에서도 Z세대가 일본을 군국주의로 바라보는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2018년을 제외하고 응답율이 대체로 50% 전후에 머물렀다면, Z세대의 응답율은 2013년 45%, 2014년 37%, 2015년 39%, 2016년 42%, 2017년 44%, 2018년 37%, 2019년 35% 등 35-45% 사이에서 변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9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율과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율이 49%로 동일했던 반면, Z세대는 그 보다 훨씬 낮은 35%였다. 여기에서는 MZ세대 중 Z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대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외관을 가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군국주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평화주의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율보다 Z세대의 응답율이 대체로 높았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13-2016년까지는 전체를 하회하는 응답을 보였는데 2017년부터는 전체 뿐만 아니라 Z세대보다도 높은 비율로 일본을 평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2019년의 경우 전체 응답율이 9%, Z세대의 응답율이 그 보다 높은 11%였다면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율은 가장 높은 13%였다.

정리하자면 MZ세대는 전체보다 일본을 군국주의로 인식하는 성향이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Z세대의 경우 그러한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MZ세대는 전체보다 일본을 평화주의로 인식하는 성향이 대체로 높았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17년부터는 Z세대보다도 높은 응답율로 일본을 평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 지도자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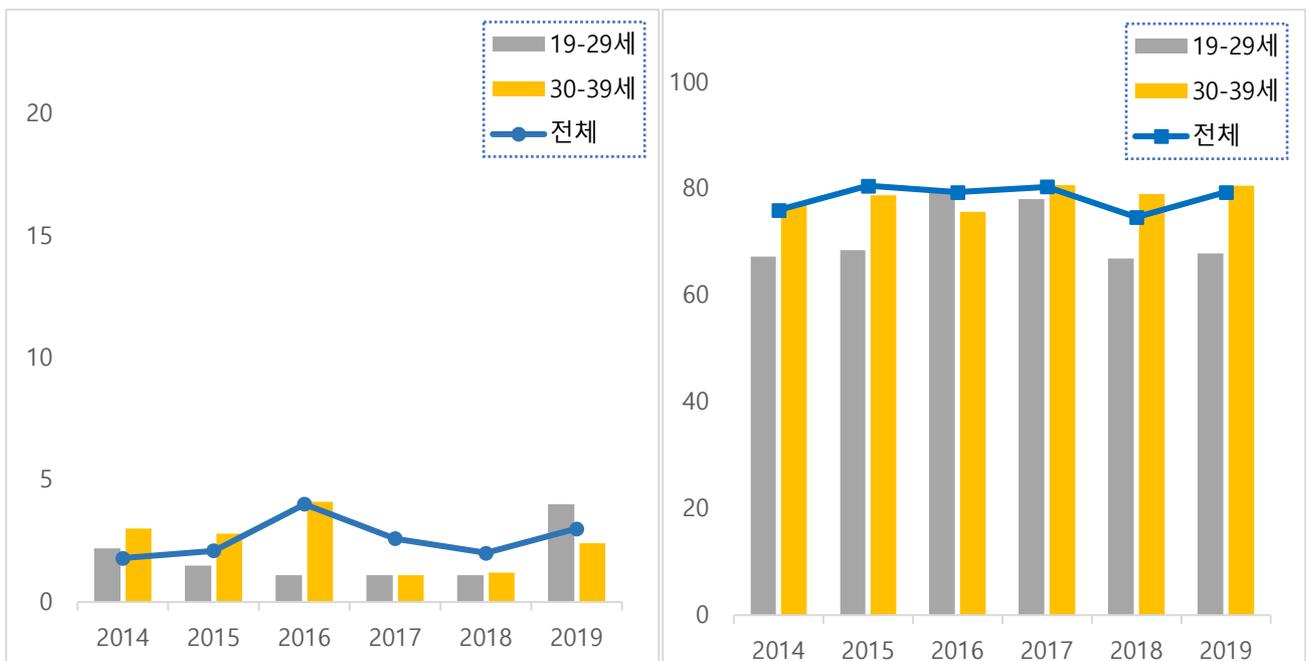
그렇다면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할까? <동아시아인식조사>가 진행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 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재임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전후 최초로 국가안보전략(□ 国家安全保障□ 略)이라는 전략문서를 발간했으며, 이후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조 아래 지속적으로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거의 매해 총리가 교체되었던 일본 정치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예외적인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의 일본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 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아베 총리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는 전체 응답자 비율은 2014년 2%, 2015년 2%, 2016년 4%, 2017년 3%, 2018년 2%, 2019년 3%이었다. MZ세대의

경우 2017-2018년은 동일하게 1%로 전체 응답자 비율인 3%보다 낮았지만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2014-2016년까지 밀레니얼 세대의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보다 높았지만 2017-2019년까지는 전체보다 낮았다. Z세대의 경우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전체보다 훨씬 낮은 1% 정도만이 아베 총리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2019년에 4%까지 응답율이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5%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율을 보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2019년의 경우만 밀레니얼 세대보다 Z세대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예외적으로 보이거나 어떠한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결과인지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같은 시기 아베 총리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는 전체 응답자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81%, 2016년 79%, 2017년 80%, 2018년 75%, 2019년 79%이었다. MZ세대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면 항상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6-2017년을 제외하고 Z세대의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보다 10% 정도 낮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베 총리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MZ세대의 일본에 대한 평가가 아베 총리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호감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19년 설문조사에서 일본을 평화주의로 보는 응답율이 전체를 상회했던 것에 반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인상은 전체(79%)와 비슷하게 8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MZ세대가 ‘나’ 중심의 대외관으로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 공정한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아베 총리가 ‘공정하지 못한’ 대한국 정책을 지속한다면 일본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림 3] Q.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
 <좋아졌다> <나빠졌다>



* 출처: 2014-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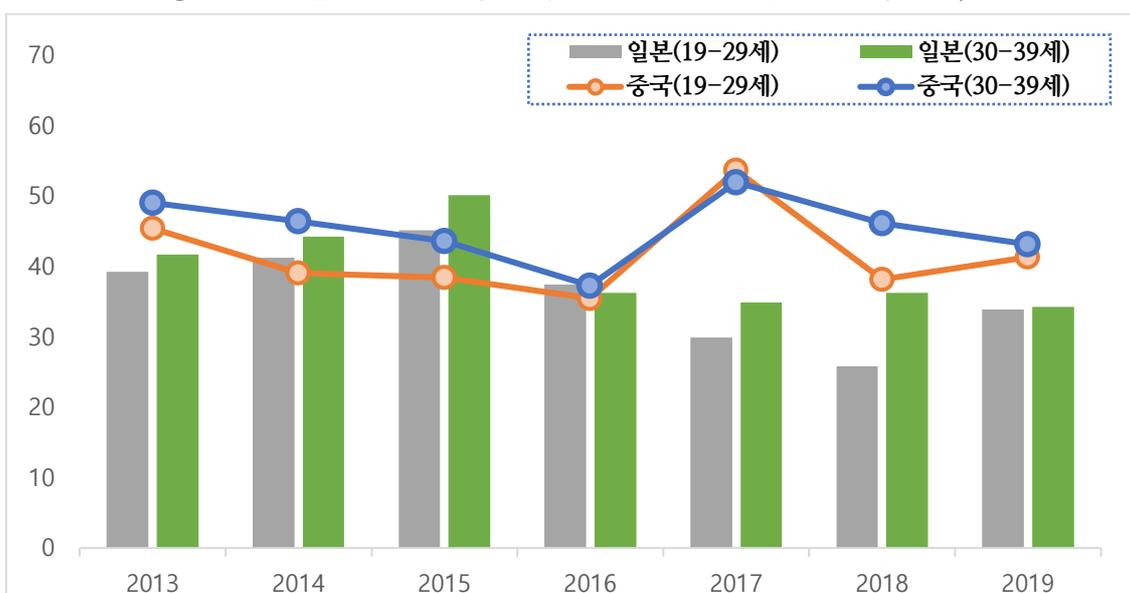
III.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2010년 이후 한일관계는 협력 보다는 갈등이 부각되며 독도 영유권, 역사인식 문제 등에서 그 마찰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아베 시기 한일 양국은 정치적 갈등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적 의존까지 줄이다보니 한일관계가 더 이상 개선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론이 한국 내에서 지배적인 상황이다(손열 2020).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MZ세대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평화주의 성향이 상당히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세대가 변화하더라도 일본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의 대일 인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MZ세대가 안보적 관점에서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일 안보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군사적 위협

2013-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북한 > 중국 > 일본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순위가 변화될 때도 있지만 2014-2015년을 제외하고는 일본보다 중국을 더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MZ세대 중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0%를 상회했으나 2018년 60%대, 2019년 70%대로 하락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완화되고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배경이 있다.

[그림 4] Q.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 혹은 지역(%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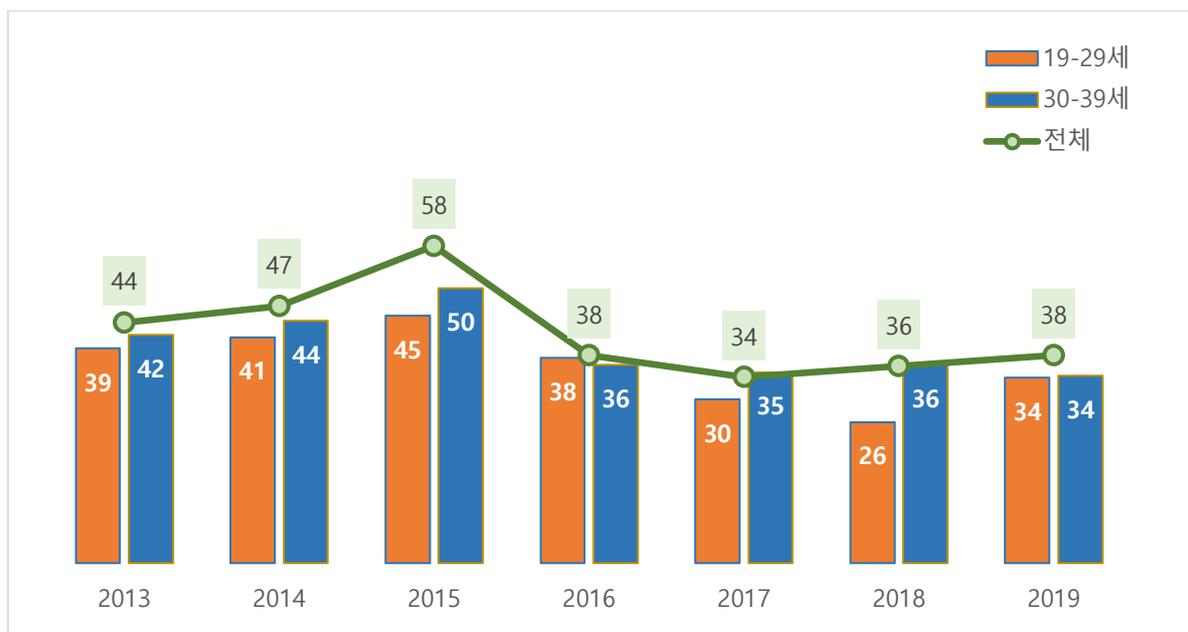


* 출처: 2013-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그림 4와 같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6년을 기점으로 교차되었다. MZ세대 중 중국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줄어들다가 2017년에 급격하게 상승했다. 반면 일본을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다가 2016년에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보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진 점은 흥미롭다. 그리고 Z세대의 경우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2016년 38%, 2017년 30%, 2018년 26%로 낮아지다가 2019년에 34%로 상승했으나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16년 36%, 2017년 35%, 2018년 36%, 2019년 34%로 변동이 적었다. MZ세대 중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에 비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2013-2015년 기간 동안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가 2016년 이후 4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대일 위협인식에 대한 전체 응답율을 보면 2013년 44%, 2014년 47%, 2015년 58%, 2016년 38%, 2017년 34%, 2018년 36%, 2019년 38%였다. 이는 MZ세대의 대일 위협인식이 변화는 있지만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전체보다 낮은 수준의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5 참조).

[그림 5] Q.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 혹은 지역(%)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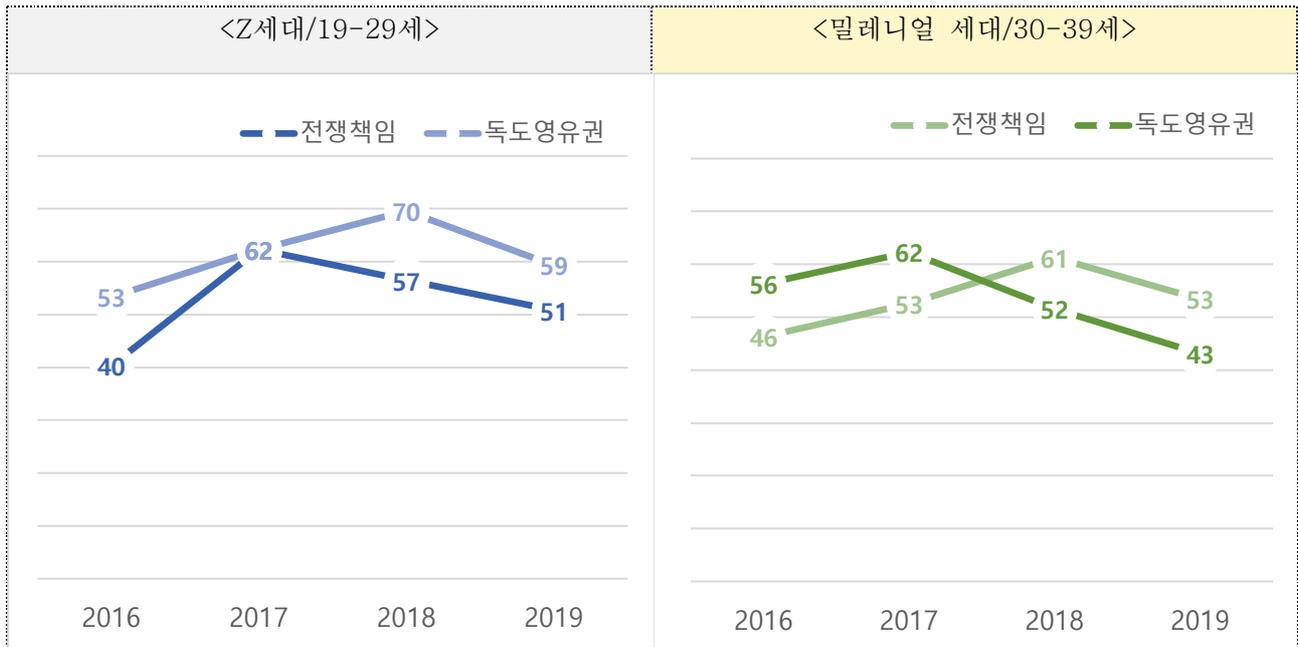


* 출처: 2013-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그렇다면 왜 일본이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볼까. 2016-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전쟁책임에 대한 모호한 자세가 응답율의 1, 2위를 차지했다(그림 6 참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한국인의 반일정서에 있어서 상수로 존재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전쟁책임에 대한 모호한 자세가 MZ세대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의 공정함을 중요시하는 MZ세대에게 있어서 일본이 떳떳하게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이지 않는 것도 위협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Z세대의 경우 2017년을

제외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장 위협이 되는 이유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전쟁책임에 대한 모호한 자세를 꼽았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17-2018년 사이에 역전현상이 나타나는데 2016-2017년 사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가장 큰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던 반면, 2018-2019년 사이는 전쟁책임에 대한 모호한 자세를 보다 큰 위협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림 6] 일본을 왜 군사적 위협으로 생각하는가(%)/상위 1, 2위



* 출처: 2016-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MZ세대의 대일 위협인식의 원인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표 1 참조). 전체 평균에서 56%가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군사적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47%가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모호한 자세로 인한 군사적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반면 Z세대의 경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59%, 전쟁책임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51%가 위협의 이유라고 응답한 만큼 두 요인 모두 50% 이상의 응답자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43%, 전쟁책임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53%가 위협의 이유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일본 정치의 우경화 경향이 위협의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41%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을 비교를 통해서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MZ세대가 결과가 아닌 과정의 공정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전전 시기 일본의 제국주의 행태와 역사인식 등 전쟁책임을 둘러싼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에 대해 비판적임이 드러났다. 향후 일본이 전쟁책임에 대한 모호한 자세를 지속하거나 과거 식민통치 및 아시아 침략역사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MZ세대의 대일 위협인식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표 1] Q.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생각하는 이유(%)/2019년(복수 응답)

	독도 영유권 주장	전쟁책임 모호한 자세	일본 정치 우경화	일본의 군사대국 지향	집단지위권 관련법 통과	미일의 대중 견제	기타
전체	56	47	33	30	27	6	3
19-29세	59	51	25	24	24	3	3
30-39세	43	53	41	33	31	5	0

* 출처: 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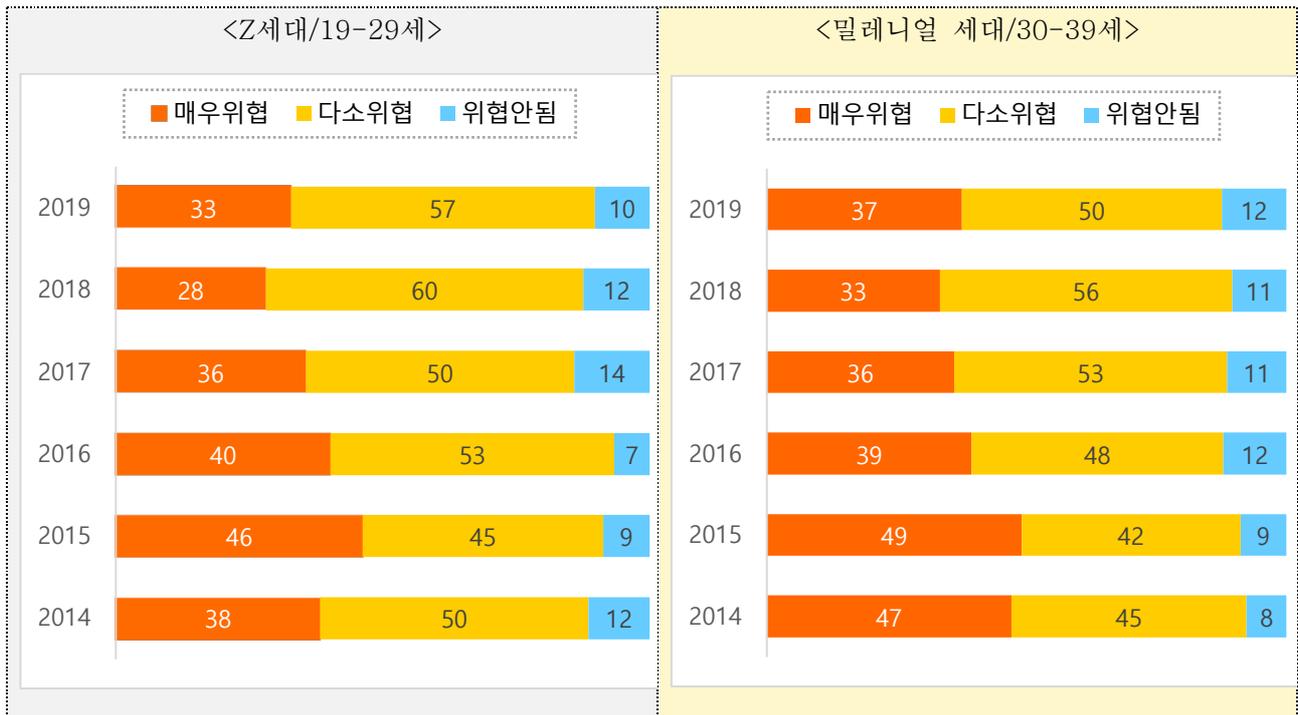
2.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은 매해 발간하는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통해서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은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유지하는 전수방위의 원칙 아래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선언적인 것이며, 실제로 보수 우경화 추세 속에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의 변화가 일본의 보통국가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박영준 2015). 이러한 가능성에 기대어 만약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이뤄낸다면 향후 10년 안에 한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

2014-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비단 현재의 아베 정부에 대한 위협인식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게 되면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림 7 참조). 매우 위협이 된다는 응답율과 다소 위협이 된다는 응답율 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보는 응답율은 약 90%에 육박했다. 흥미로운 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매우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Z세대의 경우 2015년 46%, 2016년 40%, 2017년 36%, 2018년 28%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15년 49%, 2016년 39%, 2017년 36%, 2018년 33%로 줄어들었다. 대조적으로 다소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Z세대의 경우 2015년 45%였던 것에 반해 2018년 60%까지 상승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015년 42%였던 것에 반해 2018년 56%로 상승했다. MZ세대를 비교해보면 Z세대 보다는 밀레니얼 세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위협인식 정도가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의미한 차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 7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2018-2019년 사이에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데 있다.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모두 전년도에 비해 2019년에 매우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늘었고, 다소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줄었다. 이러한 응답율 변화의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2018년 12월에 발생한 일본 초계기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림 7] Q.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것인가



* 출처: 2014-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표 2와 같이 전체적으로 한국정부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2%였고 밀레니얼 세대도 비슷하게 65% 응답율을 보였지만 Z세대는 49%의 응답을 밖에 보이지 않았다. MZ세대 모두 한국정부 주장에 동의한다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으나 Z세대의 경우 사건에 무관심(14%)하거나 모르겠다(25%)고 응답한 비율이 합쳐서 39%에 달했다.

[표 2] Q. 일본 초계기 사건에 대한 입장(%) / 2019년

	한국정부 주장에 동의	일본정부 주장에 동의	한일 정부 모두에 부동의	사건에 무관심	모르겠다	기타
전체	62	3	8	10	17	0
19-29세	49	3	8	14	25	1
30-39세	65	3	7	10	14	1

* 출처: 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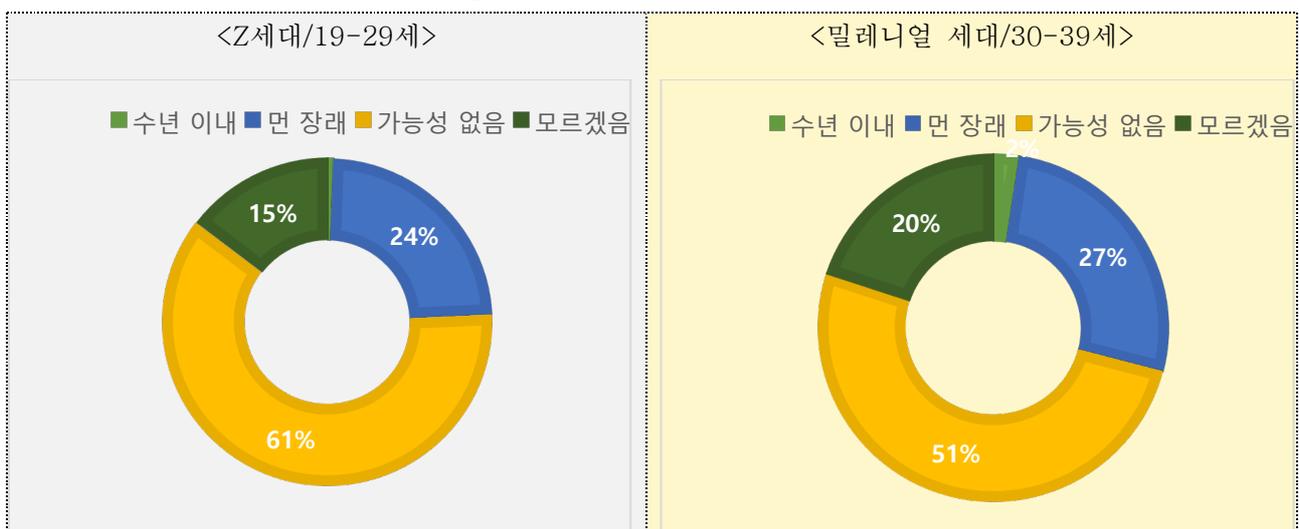
이러한 응답율이 나온 이유는 단순히 Z세대가 과정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비교해보면 더 확연해진다. 표 1에서 Z세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힘으로 강압해서 강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과 상당한 편차를 보이면서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MZ세대가 바라보는 안보 문제가 기존 세대와는 다를 것을 보여주며, 특히 Z세대에게 있어서 안보 문제가 국가 이익이라는 상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공정하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MZ세대가 반일감정을 상수로 두는 일본 인식이 아닌 갈등의 과정을 보고 그에 대한 공정함을 따져 일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IV. 청년세대(MZ세대)가 주도하는 한일 안보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MZ세대는 과정의 공정함, 나의 경험 중심의 대외관이라는 렌즈(lens)를 한일 안보관계에 투영해서, 국가 간 관계에도 과정의 공정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013-2019년 기간 동안의 <동아시아인식조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 초계기 사건 등 다양한 의제들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이외에 전쟁책임에 대한 모호한 태도, 일본 정치의 우경화 경향 등을 제시한 점은 흥미롭다. 이는 한국의 MZ세대에게 국가 간 관계에서 전쟁책임이 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8] Q. 한일간 군사분쟁 가능성(%)/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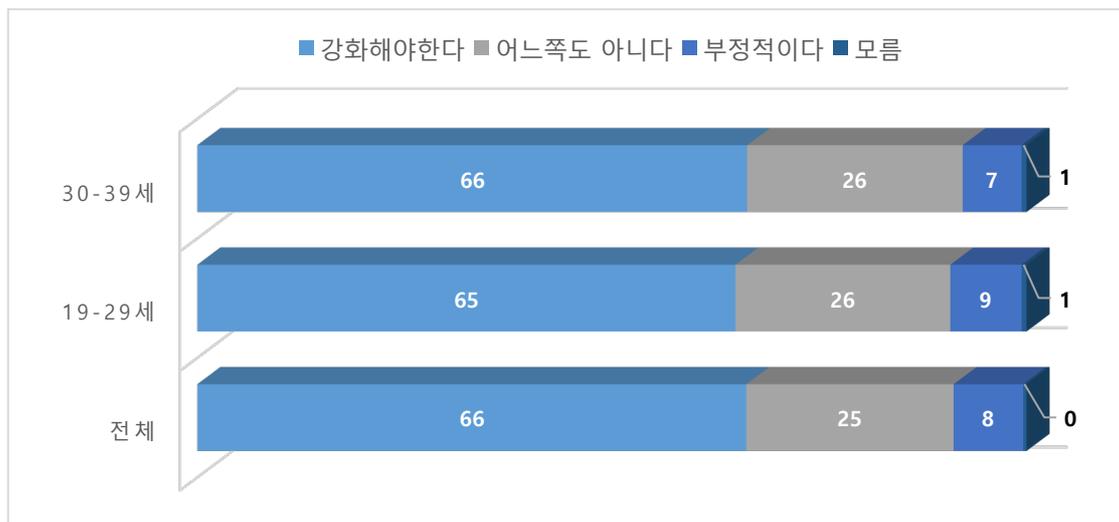


* 출처: 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그렇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군사분쟁의 가능성은 실현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율이 높았다(그림 8 참조). 2019년 <동아시아 인식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경우 군사분쟁이 수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율은 1%에 그쳤으며 먼 장래라는 응답율은 24%였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율은 61%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15%였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수년 이내 가능하다는 응답율은 2%였고, 먼 장래라는 응답율은 27%,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율은 51%,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20%였다. 전체 평균에서는 가능성 없음이 55%의 응답율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해보면 밀레니얼 세대보다 Z세대의 경우가 군사분쟁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9] Q.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 2019년



* 출처: 2019년 동아시아인식조사

또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MZ세대 모두 전체 평균(66%)과 비슷한 수준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림 9 참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지지한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 중 65%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답했으며, 45%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에 그쳤다. 반면 Z세대 응답자를 살펴보면 74%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답했고, 44%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12%가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데 있다. 이는 전체 평균인 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MZ세대 내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간의 관계를 상이하게 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한미일 협력을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데 비해 Z세대는 한미일 협력을 한일 안보관계와 연계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과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동아시아연구원. 2013-2019. 한일상호인식조사 데이터. <http://eai.or.kr/new/ko/etc/data.asp>(검색일: 2020.8.1)
- 박영득, 이재묵. 2016. “세대에 따른 통일과 대북인식 차이 분석: 코호트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9권 2호, pp. 31-67.
- 박영준. 2015.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아세아연구』 58권 4호, pp. 6-41.
-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박찬욱, 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파주: 나남), pp. 35-62.
- 배진석. 2018.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평화연구』 34권 2호, pp. 99-135.
- 손열. 2020. “좌절하는 한일관계: 다가오는 위기, 멀어지는 해법,” EAI 논평.
- 윤정호. 2013. “미국의 9.11. 세대와 한국의 연평도 세대,” 월간조선 뉴스룸(2013.12.).
- 하인츠 부데. 2014. “맥락으로 보는 ‘세대,’” 올리케 유라이트, 미하엘 빌트 엮음, 『세대란 무엇인가?』 (파주: 한울 아카데미).
- Dower, John W.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W.W. Norton & Company, 1999).

■ **저자:** 조은일_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핵비확산체제와 일본의 핵정책 형성과정(1960-70년대)에 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글로벌 인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국제안보, 군비통제 등이며 현재 미일관계, 한일관계, 일본의 안보방위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저서로는 “아베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한국과 국제정치>(2020), “한국 군비통제정책의 시대적 변화 연구” <국방정책연구>(2020, 공저),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한일군사문화연구>(2019),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연구” <국가전략>(2019) 등이 있다.

■ **기획 및 편집:** 오승희 EAI 수석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2) seungheeh@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8월 11일

[EAI 워킹페이퍼] 한일관계 세대분석_안보.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979-11-6617-001-0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